

자신감 되찾은 손흥민의 중거리포, “클래스는 영원하다”

프레스턴과 FA컵 4라운드서 중거리 감아차기로 선제골, 시즌 7·8호골

맨시티와 대결 앞두고 감각 회복...스카이스포츠 등 영국 언론도 극찬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중거리 골과 같은 득점이 필요했다”

손흥민(토트넘 핫스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맨체스터 시티와 2022-2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앞두고 자신감을 찾았다. 손흥민이 득점 감각을 다시 살리면서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손흥민은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의 디페일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 2022-23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4라운드(32강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5분과 24분에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의 3-0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시즌 EPL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올 시즌 들어 극심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EPL에서 4골에 그치고 있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에서도 2골에 머물렀다. 그러나 FA컵 경기를 통해 2골을 추가하면서 올 시즌 8골을 기록하게 됐다. 손흥민은 앞으로 2골만 추가하면 21골을 넣었던 지난

2016-17 시즌 이후 일곱 시즌 연속 두자리 득점을 기록하게 된다.

이날 손흥민의 멀티골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것은 후반 5분 왼발 감아차기로 선제 골을 만들어낸 장면이다. 손흥민은 후반 5분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내준 자넷 탕강가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바깥쪽에서 강력한 왼발 감아차기 중거리포로 프레스턴의 골망을 흔들었다. 30m라는 만만찮은 거리에서 골을 만들어냈다.

영국 언론들도 손흥민의 중거리 골에 주목했다. 영국 BBC 방송이 경기 끝난 뒤 이 장면에 대해 손흥민에게 질문했다. 손흥민은 “자신감을 되찾기 위해 그런 골이 필요했다”며 “스트라이커로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골을 넣는 것이다. 팀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다.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수석코치도 “손흥민은 훌륭한 선수”라며 “손흥민은 경기에 집중했으

며 목표물을 찾았다. 프레스턴이 전반에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손흥민의 집중력이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칭찬했다.

영국 스카이스포츠 역시 손흥민의 이날 활약상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스카이스포츠는 “손흥민이 다시 미소를 지었다. 해리 케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 벤치에 앉아있었지만 손흥민이 결정적인 두 번의 득점으로 승리를 책임졌다”며 “폼은 일시적이고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완벽한 예다. 손흥민의 자신감이 돌아왔다”고 극찬했다.

손흥민의 자신감은 토트넘이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토트넘은 당장 다음달 6일 맨체스터 이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격돌한다.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도 UEFA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려면 반드시 맨시티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이어 토트넘은 레스터 시티와 EPL 경기를 치른 뒤 다음달 16일 AC 밀란과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돌입한다.



토트넘 핫스퍼의 손흥민(오른쪽)이 29일(한국시간) 영국 프레스턴 디페일에서 열린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 2022-23 FA컵 4라운드에서 선제 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중요한 경기에 계속 이어지는데 FA컵 16강전 일정도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자신감과 득점 감각이 더욱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때에 손흥민이 되살아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뉴스

‘-47%’ 강백호, 데뷔 첫 연봉 삭감...캠프 출국 이틀 미뤄져

2022시즌 5억5000만원서 2억6000만원 깎여...2억9000만원에 사인

강백호(24·KT 위즈)가 데뷔 첫 연봉 삭감의 쓴맛을 봤다.

KT는 29일 2023시즌 연봉 계약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눈에 띄는 이름은 강백호다.

구단과 긴 줄다리기를 벌였던 강백호는 지난해 연봉 5억5000만원에서 47.3%(2억6000만원)가 깎인 2억9000만원에 사인했다. 2018 2차 1라운드 1순위로 KT에 입단한 강백호의 연봉이 삭감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데뷔 후 승승장구하면서 매년 연봉도 올랐다. 2022시즌을 앞두고는 3억1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인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강백호는 기대에 걸맞

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부상으로 시즌 출발이 늦어진 강백호는 62경기 타율 0.245, 6홈런 29타점으로 부진했다.

연봉 삭감은 피할 수 없었다.

문제는 삭감액을 놓고 구단과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단 관계자는 “강백호는 28일 밤 연봉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팀의 스프링캠프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극적 타결’이었다.

그러나 29일 스프링캠프 출발을 함께하지 못한다.

연봉 계약이 늦어진 강백호는 항공편 예약 등의 문제로 이틀 후인 31일 구단 직원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나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벤투 한국 축구대표팀 후임 찾기 본격화 보르달라스·핑크·치치·비엘사 등 물망

파울루 벤투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후임을 찾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 사령탑 후보군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마이클 필러(독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지난 25일 온라인 화상으로 1차 회의를 열고 차기 축구대표팀 감독을 뽑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회의는 감독 선임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며, 3월20-28일 예정된 A매치 전까지 선임될 전망이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2022 카타르월드컵 16강을 이끈 벤투 감독이 떠나면서 새 사령탑을 찾고 있다.

한때 국내 감독이 후임으로 올 것이라 보도도 있었지만, 벤투 감독의 성공으로 높아진 팬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또 한 번 외국인 감독이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베일에 감춰졌던 한국 감독 후보군도 외신 등을 통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최근 호세 보르달라스(스페인) 전 헤타페(스페인)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와 접촉했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1993년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 보르달라스는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헤타페, 발렌시아 등 스페인 클럽들을 주로 맡았다. 2021년엔 이강인이 몸담았던 발렌시아 지휘봉을 잡아 스페인 국왕컵(코파델레이) 결승 진출을 이끄는 등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국가대표팀을 이끈 적이 없고, 해외 구단을 맡지 않아 ‘한국살이’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브라질 명장 치치 감독도 하마평에 올랐다. 2016년부터 브라질 대표팀을 지휘한 치치 감독은 2019년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아메리카) 우승 등을 이끌었다. 하지만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8강 벽을 넘지 못하고 경질됐다.

치치 감독은 명성이나 실력 면에선 과거 거

스 히딩크 못지않은 커리어를 자랑한다. 그러나 브라질 현지에선 치치 감독이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거절했다며 한국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치치 감독이 적임자라고 판단해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다면 반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시절 손흥민의 스승인 토르스텐 핑크(독일) 전 감독도 한국 대표팀 차기 감독으로 거론됐다.

핑크 감독은 2019시즌 일본 J리그 비셀고베를 맡아 일왕컵 우승을 이끄는 등 아시아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손흥민을 비롯해 박주호(수원FC), 이진현(대전) 등 한국 선수와도 인연이 깊다. 고베에선 골키퍼 김승규(알샤밥)를 지도하기도 했다.

여기에 핑크 감독이 대리인을 통해 한국 대표팀 사령탑에 관심을 보인 점도 긍정적이다. 독일 출신 필러 위원장이 나선다면 핑크 감독의 한국행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펠 과르디올라,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등 세계적인 명장들의 스승으로 불리는 ‘전술가’ 마르셀로 비엘사(아르헨티나)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과 위르겐 클린스만 전 독일 대표팀 감독도 거론되는 차기 사령탑 후보다.

다만 이들의 몸값을 협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벤투 전 감독의 연봉이 135만 달러(약 16억원) 수준이었는데, 이들은 적게는 40억원에서 많게는 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새 감독이 벤투처럼 자신만의 코치진을 데려와 ‘사단’을 꾸린다면, 연봉 규모는 더 커진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빅네임’ 지도자를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이들이 몸값을 스스로 낮추지 않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후보군에서 일찌감치 제외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나온다.

뉴스

‘K리그 복귀설’ 김신욱, 흥흥서 데안과 투톱 뛰나

‘진격의 거인’으로 불리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김신욱(35)이 흥흥 프로축구 명문 키치로 갈 거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흥흥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28일(현지시간) 이적시장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며칠 안에 김신욱이 키치와 계약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키치는 김신욱에 접촉한 첫 구단”이라며 “K리그 구단들도 김신욱 영입에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키치의 켄 응 회장은 최근 아스널 입단이 유력했던 미하일로 무드리크(우크라이나)의 하이재깅 사례를 언급하면서 김신욱 영입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흥흥 리그 최강팀으로 꼽히는 키치는 올 시즌 9경기 8승1패로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과거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FC에서 뛰며 K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데안(몬테네그로)이 활약 중이다.

데안은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최다 출전(380경기)과 최다 골(198골) 기록을 세운 레전드다.

김신욱이 합류하면 데안과 투톱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198cm 장신 스트라이커인 김신욱은 2009년 울산 현대에서 프로로 데뷔해 2012년 울산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우승을 견인했다. 또 2013년에는 K리그 최우수 선수상(MVP)을 받기도 했다.

2016년 전북 현대로 이적한 뒤에도 그해 ACL 우승과 2017년, 2018년 정규리그 우승에 앞장섰다. 이후 상하이 선화(중국)를 거쳐 2021년 8월부터 싱가포르 리그 라이언시티에서 뛰고 있다.

김신욱은 국가대표로도 A매치 56경기에 출전해 16골을 넣었다.



잘 나가는 새신랑들...김시우·임성재 결혼 후 PGA 성적 ↑

지난해 연말 나란히 결혼한 새신랑 골퍼들이 미국프로골프(PGA) 무대를 달구고 있다. 김시우(25)와 임성재(28)가 잇달아 좋은 성적을 올리면서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새신랑 임성재는 29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토리파인스 골프클럽 남코스(파72)에서 열린 파머스인슈어런스오픈(총상금 870만 달러) 4라운드에서 2타를 줄여 최종 합계 9언더파 279타로 공동 4위에 올랐다.

임성재의 이번 공동 4위는 2022-2023시즌 개막 후 최고 성적이다. 임성재의 올 시즌 최고 성적은 지난해 10월 당시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 때 7위다.

아울러 이번 성적은 임성재의 결혼 후 최고 성적이다. 임성재는 지난해 12월17일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심리적 안정 속에 대회를 치르고 있다.

임성재는 새해 첫 대회였던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대회에서 PGA와 인터뷰를 통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지만 신기하고 결혼하게 돼 새로운 마음으로 올 해를 시작하게 될 것 같다”며 “다른 면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다”고 결혼 소감을 밝힌 바 있다.

임성재는 그러면서 “항상 메이저 대회에서도 잘하는 것이 목표다. 꾸준히 4년 동안 했던 것처럼 올해도 꾸준히 보내는 것이 목표”라며 “부상도 당하지 않고 컨디션 유지를 잘 하면서 1년 동안 경기를 잘 치르고 싶다”고 밝혔다.

임성재, 파머스인슈어런스오픈 공동 4위...시즌 최고

김시우, 소니오픈서 우승...신부 오지현과 함께 축하

임성재에 앞서 지난해 12월18일 결혼한 새신랑 김시우는 결혼 후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김시우는 지난 16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와이알레이CC(파70)에서 열린 PGA투어 소니 오픈에서 우승했다.

김시우가 우승을 거두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선수인 아내 오지현이 현장에서 함께 기뻐하기도 했다.

새신랑 골퍼들이 결혼을 계기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시즌 이들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이 주목된다.

日 가가와 신지, 12년만에 J리그 복귀

한때 일본 축구의 에이스로 활약했던 가가와 신지가 12년 만에 일본 프로축구 J리그로 돌아온다. 친정팀 세레소 오사가 복귀가 확정됐다.

스포니치 아렉스 등 일본 스포츠 언론들은 29일 일제히 가가와와 옛 친정팀 세레소 오사가 이적이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2006년 세레소 오사가를 통해 프로에 데뷔한 가가는 2010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로 이적하며 유럽 진출에 성공했다.

이후 2012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유니폼을 입었지만 도르트문트에서 보여줬던 활약에 미치지 못했던 가가는 2년 만에 다시 도르트문트로 돌아갔다. 이후 튀르키예 베식타스에서 임대로 뛰었고 2019년에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레알 사라고사로 건너갔다.



뉴스